

오늘의 벽찬 꿈 기차 타고 유럽 여행

부산에서 리버풀까지 유라시아 밀월 열차

우리나라는 섬이다. 삼면은 바다, 한 면은 휴전선으로 막혀 있다. 남북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서 평범한 시민들은 두 가지 정도의 꿈을 꾸게 되었다. 50대 이상은 북한에 땅을 사는 것, 40대 아래 청년들은 기차를 타고 평양은 물론 유럽까지 여행하는 것. 땅 사는 일이야 파는 사람 맘이니 아직은 깜깜한 이야기지만, 기차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것도 곧. 우리는 그 기차를 타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글 이영근(여행작가) 사진 픽사베이, 위키미디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 된 대한민국

부산발 유럽행 열차를 연결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밀월'이다. 밀월, '꿀처럼 달콤한 달'이라는 뜻이다. 영어의 허니문도 '꿀+달'인 것을 생각하면 '신혼의 달콤함'이란 동서양을 막론하는 게 확실하다. 밀월 뒤에는 어떤 단어가 붙어도 사랑스럽고 끈적하다. 그렇다. '남북 밀월 관계'가 부산발 유럽행 열차가 연결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다. 두 번째이자 핵심 조건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s) 가입이다. OSJD는 1956년에 창설되었는데, OSJD에 가입하려면 회원국 만장일치의 동의를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몇 차례 정회원 가입을 시도했지만 북한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으나 지난 6월 2일에 열린 총회 때는 찬성표를 던져 뒤 정회원이 되었다.

레일리스트들의 꿈 시베리아 횡단 열차

국제기구는 아니지만 전 세계에는 '레일리스트, 기차 덕후'들이 존재한다. <은하철도999>와 <설국열차>에

환호했던 그들은 전 세계의 기차 네트워크화를 주장하는 노마드들이다. 그들이 남북 평화를 원하는 이유는 정치, 경제, 문화, 통일, 뭐 그런 게 아니다. 남과 북의 철도가 연결되었을 때만 이를 수 있을 기차 여행의 꿈 때문이다. 레일리스트들은 부산과 일본 규슈를 해저 터널로 연결하고, 일본 최북단 삿포로와 쿠릴 열도에 레일을 깔고, 러시아 극동 나우칸하이카와 미국 알래스카의 웨일즈를 이어 캐나다와 미국, 그리고 남미를 관통해 남극점까지 기차로 연결하는 꿈을 꾀다. 이제 꿈에서 나와 보자. 실제로 남북 휴전선이 개방되면 부산은 전 세계 여행자들의 버킷리스트에 오르고도 남을 기차 여행의 끝판왕이 될 게 분명하다. 항공기나 유람선을 타고 부산에 도착한 그들은 부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도라산역에 내려 평화 생태계로 변신한 DMZ의 광활한 자연을 가슴에 담고, 신장 개업할 게 분명한 옥류관 냉면과 불고기를 맛본 후 평양을 거쳐 평의선 마지막 역이자 중국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신의주에 도달하게 된다. 철교를 건너 중국으로 들어가면 곧장 TCR(중국횡단철도), TMGR(몽골횡단철도)이 대륙으로 달릴 여행자를 기다리고 있다. TCR은

만포선의 종착지 만포에서도 연결된다. 평양역에서는 모스크바까지 1만 286km를 달리는 정규 노선이 이미 운행 중이다.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시베리아철도를 따라 러시아 전역과 유럽의 도시들, 그리고 파리와 런던을 잇는 지하 터널을 통과해 런던을 거쳐 리버풀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꿈이 당장 실현 가능한 이유는 경의선은 이미 연결이 완료된 상태고, 동해선 또한 새로 건설해야 할 구간이 그닥 길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남북의 국경 철도가 연결된다면 이 길고 긴 철도의 극점은 부산-리버풀이 되는 것이다. 애 생각만 해도 발이 동동 떠 있는 느낌! TSR(시베리아횡단철도)로 도달할 수 있는 도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아름답기로 세계 최고라 불리는 아무르강 유역에 있는 하바롭스크는 강을 끼고 있는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강변에 도시를 건설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범 답안 같은 도시다. 슬류단카는 바이칼호 접근 도시라는 점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러시아 건축 양식의 축소판으로 보이는 건물들과 거리, 소담스럽고 작은 시장, 순박한 인심 등이 인상적이다.

시원한 바람을 가르고 달리는 열차의 꿈